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기사자료	3
[강진일보] 제21회 영랑시문학상 곽효환 시인 수상 '영예'_2024.4.25	3
첨부파일(2)	3

[강진일보] 제21회 영랑시문학상 광효환 시인 수상 '영예'_2024.4.25

작성일 2024.04.26 09:55

등록자 시문학파기념관

조회수 18

첨부파일(2)  1.png 1 hit/379.9 KB [다운로드](#) 2.png 1 hit/119.4 KB [다운로드](#)

강진군-동아일보 공동 주최 심사 수상작 '소리 없이 울다 간 사람'



광효환 시인과 행사 관계자들이 함께 무대에 자리했다.

지난 19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제21회 영랑시문학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광효환 시인이 무대에 올라 시상금 3천만원과 상패를 수상했다. 수상작은 '소리 없이 울다 간 사람'이다.

강진군과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제21회 영랑시문학상은 이달 초 동아일보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광효환 시인의 '소리 없이 울다 간 사람'을 올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9일 본심 심사위원회는, 1차 예심과 2차 예심을 거쳐 올라온 5개 작품을 놓고 밀도있는 심사 과정을 거쳤다.

광 시인은 '그리운 무명의 사람들을 오늘 다시 그리워하며'란 제목의 수상 소감문을 통해 "소리없이 울다 간 사람은 그리운 무명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동시에 황당하기 그지 없는 '뜻밖의 산고까지 겪으면서 시인에게 한 권의 시집을 내는 일이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준 시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 시인은 이어 "영랑시문학상의 수상은 그간 고단하게 걸어오며 호명했던 그리운 무명의 사람들을 더욱 그리워하라는 격려이면서 앞으로 걷는 길에서도 계속해서 듣고 묻고 사유

(<http://www.gangjin.go.kr>)

하는 것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군은 자랑스러운 영랑의 시혼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영랑시문학상을 제정, 탁월한 시인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곽효환 시인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고 말했다.

곽효환 시인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건국대 국문학과와 고려대 대학원 국어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세계일보에 ‘벽화 속의 고양이 3’을, 2002년 ‘시평’에 ‘수락산’외 5편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김응곤 기자

목록

COPYRIGHT © GANGJIN-GUN. ALL RIGHT
RESERVED.

GANGJIN

Web Contents

